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982
----------	-----

발의연월일 : 2016년 2월 5일

발 의 자 : 김생환, 김기대, 김동욱, 김동윤,
김미경, 김용석(도봉), 김창수, 김태수,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호근,
서영진, 신언근, 오봉수, 유 용,
유찬종, 이순자, 이현찬, 장우윤,
장홍순, 최관술, 한명희 의원(23명)

1. 주 문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마사회가 학교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경마장 본장에 비해 사행성이 더 높아 도박중독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교육 여건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장외발매소 인접지역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장외 발매소 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추가적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은 학교 및 주택 인접지역에 장외 발매소 설치제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주택 및 학교 주변의 주거·교육권 침해 등으로 인해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이송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최근 마사회가 용산지역에서 학교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 2016년 현재, 마권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 본장에 비해 사행성이 더 높아 도박중독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 장외발매소를 드나드는 경마꾼이나 도박중독자로 인해 주변에 유흥가가 조성되거나 소란 및 범죄발생 우려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교통 여건을 저하시키고 교육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주택 및 학교와 인접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고, 장외발매소의 경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마장 본장과 달리 영상을 통해 하루에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기에 모두 베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희나 오락의 목적보다는 투기·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사행산업 이행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1.6%로 나타났다.
- 무엇보다도 주택가, 학교 주변의 마권 장외발매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은 장외발매소의 입지나 이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마사회 측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장외발매소의 입지나 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도박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도입비용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비용 등도 함께 증가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체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 따라서,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 중독 등의 폐해, 입지나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의 입지, 이전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등 사전절차를 비롯한 명확한 기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등을 내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도심 주택가 등에 설치된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 아울러, 국회에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으나,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한국마사회법」의 조속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및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